

art

INCULTURE

현태준, 별난 아저씨의 수집 만화경
민정연의 파리 아틀리에

2007 11

IT'S GLOCAL ART

APAP2007_PLATFORM SEOUL_GIAF

인체로 표현된 역사와 현실

글 | 정무정

〈서울국제판화사진미술제〉나 〈화랑미술제〉 같은 대형 전시와 해외 작가전 그리고 다양한 개인전 등으로 미술계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단풍처럼 화려하고 다채로운 전시 중에서도 인체를 중심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주재환, 안창홍, 정복수의 신작전은 세 작가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고민과 태도 그리고 전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시선

갤러리눈에서 열린 〈손장섭 · 주재환〉전에 출품된 주재환의 작품은 2006~7년에 제작된 〈도깨비〉 시리즈와 〈캔디〉 시리즈로 구성되었다. 미술계의 가장자리에 머물며 치열한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의 시선을 유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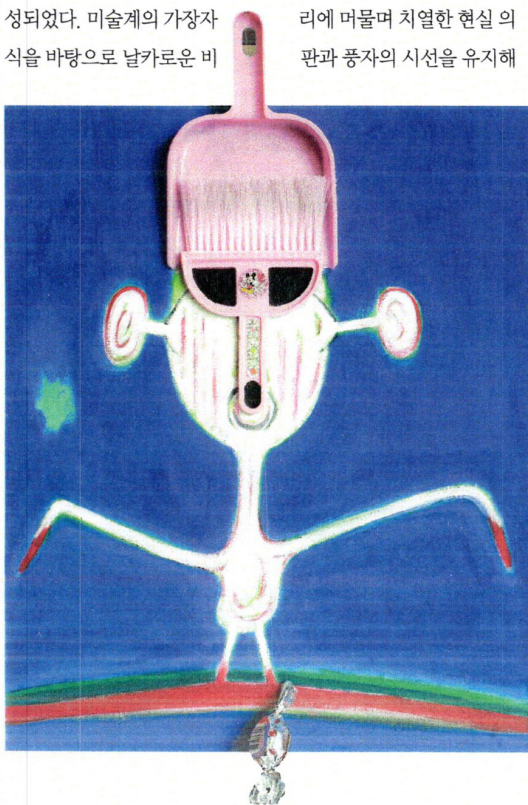
온 그의 이번 작품은 대부분 밝은 원색의 바탕에 오일이나 사탕, 나프탈렌 방취제, 쓰레받기와 같은 재료로 묘사된 형상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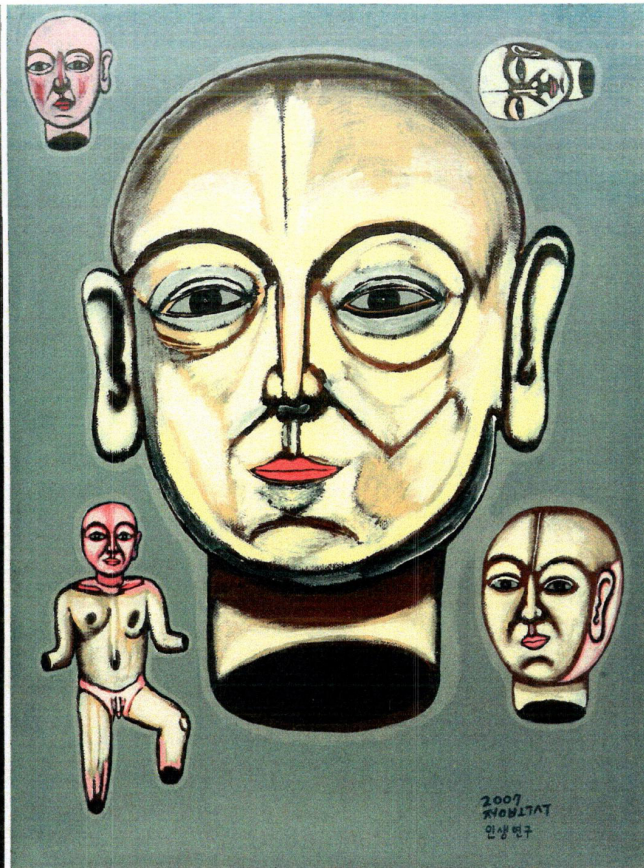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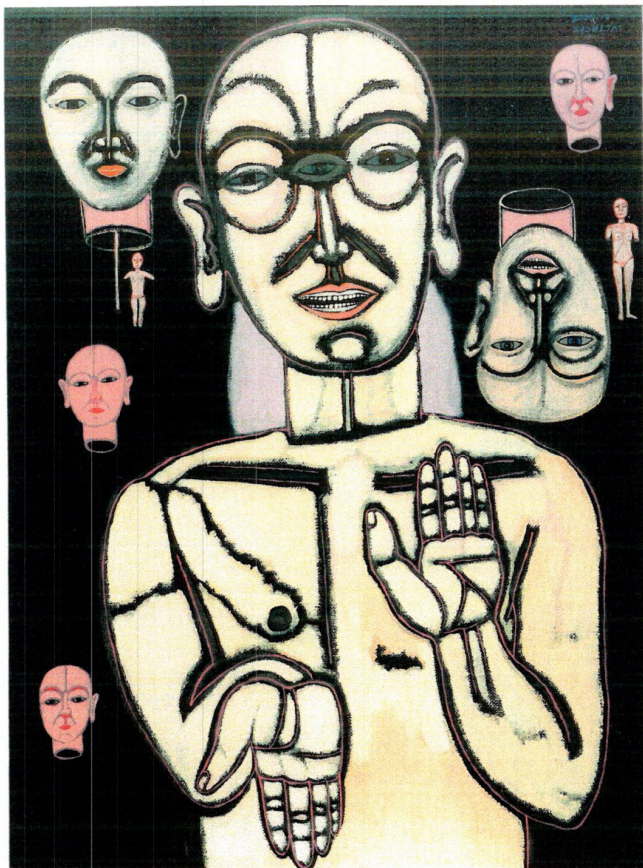
제목이 시사하는 이 도깨비 이미지는 팔다리가 작고 가늘며 얼굴만 크게 확대되어, 〈비닐boy〉 〈철규〉 〈출입금지〉와 같은 이전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보다 인물이 단순화되고, '20세 미만 출입금지업소'와 같은 상황적 정보들이 사라져 그 의미의 모호성이 증대되었다는 사실 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호해진 의미 파악의 요체는 사용된 일상 용품들에 부여된 상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닐 끈, 쇼핑백, 뭇, 나무젓가락, 신문, 색종이, 껌 종이, 모눈 종이 등과 같이 버려진 폐품을 이리저리 오리고, 붙이고, 뚫어 만

왼쪽 · 주재환 〈캔디6〉 캔버스에
오브제 65.1×53cm 2007
오른쪽 · 주재환 〈캔디3〉
캔버스에 오브제 53×45.5cm
2007

오른쪽 페이지
왼쪽부터 시계 방향
정복수 〈인생연구〉 캔버스에
유채 53×41cm 2006
정복수 〈인생연구〉 하드보드지에
유채 40.5×31.5cm 2007
정복수 〈몸의 초상〉 골판지에
연필 235×181.5cm 1998





든 주재환의 소위 '천원 미술'은 권력으로서의 미술 제도, 미술 작품의 물신화, 미술가의 신화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의미를 띠었다. 이번 작품에서도 사탕, 팔레트, 나프탈렌 방취제, 쓰레반기와 같은 일상용품에서 그러한 풍자와 해학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방향은 이전처럼 바깥 세계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탕은 열량만 높고 시간과 더불어 흘러내리는 모습에서 야경, 패션 같은 현대 생활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작가의 반문에서 그의 작품에 사용된 사탕이 현대적 삶에 대한 은유의 의미를 띠고 있음이 간파된다. 다시 말해 어둠이 인간 풍경을 단색으로 채색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감추고, 적나라한 신체가 화려한 패션으로 포장되듯이 위선과 허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사탕에 비유한 것이다. 줄줄이 매달린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캔디3>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도깨비의 사탕발림이 느껴지고, <캔디11>에서 작가의 분신인 팔레트로 이루어진 몸 위를 가로지르는 줄줄이 사탕은 변두리에 머물러 온 작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유혹을 시사하는 듯하다.

이런 관점에서 나프탈렌 방취제(캔디1, 2)와 쓰레반기(캔디4)처럼 청소나 정화와 관련된 오브제가 눈과 입을 이루고 있는 작품들은 초심을 다잡으려는 작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스스로 유희의 제작 과정을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인생 과정을 청소하는 것"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그의 도깨비는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유희에 흔들리는 스스로에게 올리는 경종인 셈이다.

한편 주재환의 전시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증해 '아름다운 의인(義人)재단'(가칭) 설립의 한 과정인 "평범한 이웃이지만 의로움이 넘치는 사람들의 뜻을 기리는 의인 공원"을 건립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익명의 전시 공간을 모순된 현실을 일깨우는 도깨비들이 노니는 상상의 공간이자 실천적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연출력에서 주재환의 일관된 작업 세계가 느껴진다.

익명의 사람, 기괴한 인체

갤러리아트싸이드에서 열린 <안창홍·정복수>전에서도 주재환의 도깨비처럼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나 주재환의 도깨비들이 낙관
과 비판의 중간지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
의 시선을 반영한다면 안창홍과 정복수의 인체
는 양극단의 태도를 드러낸다.

먼저 1980년대 초에 <가족사진> 연작을 발표
한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실험
해 온 안창홍은 <봄날은 간다> <기념사진> <얼굴>
연작을 선보였다. 사진의 주인공은 부모의 사진
을 소재로 한 <기념사진>을 제외하면 모두 인터
넷 정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1950년대 익명의 사
람들이다.

그러나 손으로 찢기고 칼로 잘려 그로테스크
하게 일그러진 안창홍의 작품에서는 옛날 사진
에서 느끼는 아련한 과거의 향수나 그리움의 공
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칼자국을 따라 흑색과 적
색의 물감을 줄줄 흘려 내리거나 칼로 베어진 선
을 따라 사진 표면을 약간 들어 올린 뒤 톱니 모

양으로 세운 그의 사진에서는 아련한 추억 대신 강렬한 시각적 충
격만이 자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훼손된 사진은 “외부
로부터 가해지는 불가항력의 폭력과 야만을 이야기”한다. 또한
사진을 오려내고 다소 어긋나게 덧붙여 이미지가 이중, 삼중으로
겹쳐진 듯하게 처리한 기법은 광기와 억압의 시대로 인한 분열된
자아와 인간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수단이다. 결국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익명의 주인공들은 그와 그의 가족이 겪은 상처와 고통,
더 나아가 그 시대의 고난과 모순, 억압과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셈이다.

안창홍의 인물이 개인과 시대의 고난과 불안의 상징이라고 해
도 그것이 곧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겪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과 역사의 무자비
함과 나약함에 대한 이해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삶
에 대한 희망의 토대가 된다. 이번 전시를 앞두고 쓴 작업 노트에
서 그러한 낙관적 전망이 엿보인다. “돌이켜 보면 캄캄한 터널 속
을 빠져 나온 듯한 아찔하고 충격적인 기억들, 깊고 차가운 문신
을 남겨놓(곤) 채빨리 지나가버린 재난의 시간, 그 시간을 딛고
자라난 희망과 삶의 절실함, 암흑의 넋쿨 숲을 (헤)쳐 나온 안도
감과 더욱 선명해진 인생 길. 시름이 깊을수록 아! 삶은 더욱 아
름다워라.”

구작인 <몸의 초상> 연작과 신작인 <세상의 질서> <인생연구>
연작을 출품한 정복수의 경우 기괴한 인체 이미지라는 점에서 주
재환과 안창홍의 이미지와 유사하지만 팔다리가 잘리고 성기와
내장이 드러난 인체에서 니체의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느낄 수 있



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정복수의 인체는 고전적 미의 장소가 아니라 살덩어리로서의
물질로 다가온다. 무대 위의 배우가 온 몸을 바쳐 모든 공연을 마
친 뒤 느끼는 허무함과 고독의 공간으로서의 몸의 느낌이다. 팔,
다리가 잘린 인체에 대해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라도 편안
한 것만 추구하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다. 손이나 발이 없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는 그의 작업은 결국
성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육체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작과 신작의 차이라면 비판적 체념이 점차 낙관적인
전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콜판지에 연필로 그린 <몸의 초상>이 성과 욕망의 덩어리로서
의 인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준다면 팔과 다리, 성기와 얼
굴이 미사일처럼 화면 곳곳을 무질서한 듯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질서에 따라 날아다니고, 얼굴이 목에 거꾸로 달려도 날아가는
팔이 다리에 붙어도 어색하지 않을 듯한 <세상의 질서>에서는 그
러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여유가 느껴
진다. 두려움을 없애주고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는 ‘시무외의원인
(施無畏與願印)’을 하고 있는 <인생연구>에서 감지되는 종교적
도상의 분위기는 그러한 변화의 동인이 무엇인지 짐작케 한다.
수행자의 고행처럼 반복적으로 그려온 인체 이미지를 통해 그가
도달하게 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망이 어떤 모습일지 자못 궁금
하다. ●

정무정 |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안창홍 <봄날은 간다' 3>
사진 콜라주에 드로잉 잉크
104×156cm 2007

왼쪽 페이지
안창홍 <기념사진' 1>
사진 콜라주에 드로잉 잉크
110.5×60cm 2007